

한반도 냉전 구조에 대한 제언: 해소될 수 있나?*

Richard W. Chadwick / 하와이대학교 교수

1 동안 한반도 문제에 대한 한국 학자들의 주된 관심은 한반도의 재통일을 어떻게 이루어나갈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왔다. 이러한 주제에 대하여 새롭고 획기적인 해결점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변화하는 국제 환경과 새로운 비전에 관한 여러 저술들을 토대로 몇가지 견해를 제시하고자 한다.

한반도 문제의 쟁점

한국의 지도자들은 한반도 문제를 ① 한반도 냉전 구조라는 해체 대상이 있다는 점과 ② 해체 대상이 있다면 해체시켜야 하며, 이는 한국 스스로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견해는 한국의 주권을 반영하는 것이다.

한반도에서 해소되어야 할 '냉전'이라는 문제를 논하려면 과거 미국과 러시아의 냉전과 중국의 한국전쟁 참여 등의 역사를 살펴볼 수 없다. 예를 들어, 한국동란시

압록강 넘어 중국의 참전만 없었다면 통일을 이룰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즉, 한반도의 냉전 문제는 장기간 지속된 분단에서 기원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지만 남북한의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변의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의 강대국에 의해서 주도되어왔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므로 한국의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갖고 있다. 한국이 통일을 이룩할 만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또한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 주변 국가들의 이해 관계를 만족시킬 수 있는가이다. 그러나 이보다 실제로 어렵고 예민한 질문은 통일된 한국이 과연 남한이나 북한에 이점이 있는가이다. 이와 같은 질문은 특정한 대답을 단숨에 얻거나 가볍게 다뤄질 사안들이 아니다. 분명히 현실 정책 차원에서 다뤄질 문제들이다. 하지만, 이와 같이 어려운 주제에 대해 분명하고도 명쾌한 조언을 하기는 더 더욱 어렵다.

역사적 관점에서 이들 문제들을 검토해보

* 이 글은 통일연구원 창립 8주년 기념 제8차국제학술회의(1999. 4.8)에서 발표된 영문 원고를 번역, 요약·정리한 것이다.

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과거의 것들이 반드시 미래의 모습을 예견하는 데 믿을 만한 것으로 사용될 수는 없을지라도 문제 자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그 해답을 찾아가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분단'이라는 한반도 냉전 구조 상황을 역사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문제 해결에 접근하는 몇가지 시나리오를 제안하려 한다. 하지만, 각 사안에 대해 결론에 이르지 않는 것이다. 말미에는 각종 경험과 몇가지 결론적인 의견을 피력할 것이다.

한국과 동북아 주변국의 역사적 고찰

한국의 분단은 양극체제의 상징인 미국과 러시아의 라이벌 대결의 직접적인 결과이며, 이와 관련하여 중국·일본·한국을 바라보는 지난 50 년간의 지속된 비현실적인 관점의 결과이다. 또한 脫냉전기에 접어들어, 일러·중러·미중·미러 관계 등이 평화적 모습으로 변화해나가는 흐름 속에서 한반도만이 냉전 구조의 잔재물로 남아있는 역사적 사실이다.

현재 미국·러시아의 對동북아 정책 변화는 국제 환경 속에서 중국의 군사적·경제적 능력에 대한 평가 결과와 관련되어 있다. 이와 같은 정책 변화는 국가 주도의 시스템이

취약하거나 대중 여론·소수 의견·인터넷 혁명·세계의 자원 고갈이나 환경 파괴에 기인한 것이 아니다. 이같은 변화는 러시아가 점점 이 지역에서 세력이 약해짐에 따라 21 세기에 중국이 군사적·경제적 강국이 될 가능성에 대한 현실 인식에 기반하는 것이다. 또 다른 요인도 있는데 이것은 아직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서, 바로 정치적 환경이다. 여전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것은 대규모 살상의 파괴력을 갖고 있는 핵무기 문제이다.

최근 중국의 현대화는 모든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하고 있다. 毛澤東은 홍콩과 마카오를 제외하고 중국을 모든 국제적인 거래에 대한 문호를 굳게 닫았었다. 아편이나 부패한 관료들의 폐해와 서구 열강들의 각축장이 되었던 상처받은 현실 속에서 毛澤東의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났지만, 그 혁명은 완결되지 못했고 登小平으로 이어졌다. 登小平은 민주주의 자본가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지만 자유 시장 경제의 가치를 이해한 지도자였다. 덕분에 중국은 급속도의 경제적 성장을 이루었고, 중상주의적 산업 혁명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뒤를 이은 江澤民은 러시아의 전제적인 자본주의 교훈과 서구의 민주주의·자본주의, 登小平 성공의 교훈을 토대로 중국을 이끌어가고 있다. 이

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중국은 예전과 같은 강국으로의 재건을 꿈꾸고 있다.

민주주의와 폭력

정치·경제적 민주주의는 정치적 목적 및 민주주의를 위한 수단으로서 그 어떤 폭력의 행사에 대해 관대하지 않다. 따라서 대중 살상 및 파괴 무기의 사용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사실 독재 정권들은 자신들의 경제력 기반들을 제 때에 파괴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이들이 일반 국민들을 제대로 통치할 수 없거나 통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것은 러시아의 연방 국가들이나 200 년 전의 대영제국의 식민지, 특히 미국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80년대 후반의 러시아의 경우 약간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것은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과두 정치의 무혈 종식을 도모하는 데 기여한 고르바초프가 있었다는 점이다. 사실 대부분의 나라에게 이와 같은 행운은 드물다.

중국과 일본의 시각

한반도에서의 중국과 일본의 관계를 보면, 지금으로부터 2세대 이전의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즉, 중

국과 일본은 비록 그것이 전략적인 목적 이외에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한국에 대해 종주국으로서 행사한 경험을 갖고 있다. 두 나라 모두 한국에 대하여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다. 기본적으로 경제적 이점과 군사적인 안전을 도모하려는 전략적 차원에서다. 다음과 같은 가설적인 질문을 해보자. 통일된 한국의 경제가 과연 일본 경제와 경쟁할 것인가? 그리고 일본 경제를 해칠 정도로 위협적일 것인가? 경제력을 회복한 북한이 과연 일본의 주요 원자재를 제공하는 나라가 될 수 있을까? 북한이 과연 그동안 상당한 영향을 받아온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체제를 과감히 포기하고 대체 수단으로서 일본을 택할 수 있을까? 점진적인 남북 통일과 최고위층들의 안전 보장을 전제로 남한으로부터 서구의 군사력을 철수시킬 수 있을까? 러시아와 일본이 과거에 그랬듯이 미국이 과연 간여할 수 있을까? 과연 미국이 한국에 대한 비전을 '태평양의 스위스화'로 가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한국으로 하여금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도모하고 일본의 대륙 진출을 어느 정도 저지할 수 있는가?

일본은 2차대전 이후 패허 속에서 미국에 의해 민주주의와 자유 시장 경제가 정착되면서 급속한 경제적 성장을 이루어 세계적인 경제 대국의 위치에 서있다. 또한 일본은 과

거에 36년간 한반도를 강점해온 역사적인 죄과를 지니고 있기에, 향후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한일·북일 관계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 역사적 고려도 필요하다. 특히, 북한의 대포동미사일 발사 실험으로 일본 본토가 북한 미사일의 사정권에 들어간다는 공포와 위기 의식은 일본 안보에 대한 잠재적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현재의 지역적 강대국인 중국과 일본의 입장에서 한반도 통일 문제는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며, 각국의 입장에서 북일·북중·북미·북러와 남북한 관계의 시각에서 '한국의 태평양 지역의 스위스화' 등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할 수 있다.

한국의 시각

역사적으로 중국이나 일본 모두 특별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한국을 인도적으로 대하지 않았다. 서방에서 그리스도시대가 막동트는 즈음에, 이미 한국 사람들은 강하고 신뢰받는 국가 민족이었다. 삼국시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기간 동안 정부는 국민들로부터 상당한 지지를 받았으며, 비교적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었으며, 일본이나 중국 및 여타 서방 세계의 침략을 물리치기도 하였다.

500년이 넘는 이조시대의 통치를 종식시키고 한반도를 정복하기 위하여 일본은 현대화된 군대를 통해 한국 정부를 일본으로 속국화시켰으며, 백성들의 필요에 정부가 무관심하도록 만들었다. 그 결과로 36년 동안 한국은 마치 노예처럼 사는 슬픈 경험을 하였다.

미국이 일본을 점령하였을 때 한국의 운명은 일본이 만들어놓은 쓸모없는 군사 산업 시설에 놓여 있었다. 2차세계대전 이후 한반도에서의 미국과 러시아가 보여준 것들은 이전에 중국과 일본이 한국에 행하였던 것과 거의 흡사하였다. 남한의 이승만 前 정부나 북한의 故김일성은 각각 미국과 러시아의 지원을 받았으며, 남북한의 분단이 미국과 러시아의 경쟁의 부산물 그 이상도 아니었다. 한국인들은 삼국시대 신라가 경쟁국인 백제와 고구려를 물리치기 위하여 중국과 손잡은 그러한 경쟁 관계 이후, 다시금 경험하는 동족간의 슬픈 경쟁 관계가 돼버렸다.

한반도는 역사적으로 중국·일본 등의 외세의 침입이 많았던 나라였고, 일본은 36년간 불법적으로 강점하기도 하였다. 또한 해방 이후의 시기에 들어서 냉전 초기 양대 진영을 구분하는 미국과 구소련의 경쟁 논리에 의해 분단되었던 것이다.

북한의 기상 시나리오

북한의 가정적인 의도 관점에서 본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중국이 쇠퇴하고 러시아의 역할이 사라지는 가운데, 미국의 압력만 가중된다면 북한은 체제 내부의 안전성을 측정하게 될 기회를 내줄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 그래서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하여 모든 핵·생화학 무기 연구의 중단을 발표하고, 북한은 각종 의혹 시설에 남한조사단의 조사를 허용하고, 유럽 통합에서 가장 첫 단계의 통합을 목표로 평양에서 정치회담을 시작하게 된다. 현재의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보다는 유럽석탄철강공동체(ESCS: 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가 바람직한 모델이 아닌가 싶다.

즉, 남북한 정부는 한반도 에너지 및 교환의 기준선을 설정한다. 일본은 북한에 대하여 쌀지원을 통하여 장거리 미사일과 대량 살상 무기의 위협을 제거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중국은 북한의 농업 개선과 자유 시장 경제의 경험에 대하여 조언을 한다. 또 비무장 지대에서 북한의 군사력이 감축되면서 군사적 위협성이 줄어든다면 남한에 주둔중인 주한 미군의 철수가 논의될 것이다. 남북한 학생들의 교환도 성사될 것이다. 이와 같은 움

직임은 평화적으로 정착되어갈 수 있다. 북한의 경우 자국민들에게 변화한 미국, 즉 남한에 대한 중주국으로서의 권한을 포기하고 돌아가는 미국을 자세히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모두들 두만강 프로젝트에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은 이것을 지지할 것인가? 미국이나 한국은 이것을 원하고 있는가? 북한이 수용할 수 없는 요구 조건을 아직까지 일본·미국·한국은 북한에 요구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북한은 왜 이같은 위협을 부담하려는가?

많은 사람들은 현재의 한반도 상황이 얼마나 불안한가를 이야기한다. 그러나 그것은 1953년 이래 줄곧 그래왔다. 이같은 기간은 식민지로부터 벗어나 독립된 그 어떤 제3세계 국가보다도 긴 기간이다. 모든 객관적인 전쟁 여건은 여전히 존재한다. 하지만, 두 나라의 지도자들이 현명하다면 친선 관계를 구축하는 데 상당한 신경을 쓸 것이다. 양쪽 진영은 장기적인 비용을 줄이는 관점에서 단기적인 취약점들을 악용하지 않는 것을 서로가 배워야 할 것이다.

이제는 미국의 시각을 살펴보자. 먼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보자. 한반도에서 무엇을 해체하란 말인가? 그것을 한국이 할 수 있는가?

한태평양권이 연간 5,000억 달러의 무역이 이루어지는 경제적 이익이 걸려있는 지역이고, 미국은 이 지역에서의 각종 분쟁과 안정을 위협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상호협정 하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며, 이는 특히 한반도 지역에서 더욱 군사적 요인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 정부나 미국군을 비난하려는 뜻은 아니나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미국에 대해 공격적인 행위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미국은 즉각적으로나 전면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미국은 즉각적으로 대통령이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다. 핵전쟁이라 할지라도 자동적으로 발발하지는 않는다.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여 주둔한 미국인들이 살상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사람들은 상황이 악화되는 것으로 판단되기를 바랄 것이다. 쿠바 미사일 사태의 경우, 주로 잘못된 판단에 근거하여 미국은 핵전쟁도 불사하는 전쟁 직전까지 갔었다. 하지만, 모든 계획과 그 실행 방법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미국은 늘 합리적인 선택을 위해 신중한 조치를 취한다. 적절한 시기에 조치를 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때때로 적들은 실제보다 호전적이고, 강하며, 잘 훈련되어 있고, 통제가 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적절한 시간은 상대편 적들을 평가하는 데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그 사고로 인해 손실 규모의 크고 적음보다도 그 시기에 누가 그것을 만들어냈으며, 그들 지도자의 의도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중요하다. 첫째, 비무장지대에서의 남북한 당사자들은 자신들의 후방에는 많은 일반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50년대 故 김일성과 이승만 前 대통령은 별로 이것에 상관치 않았는지는 몰라도, 90년대의 남북한의 두 지도자는 이것을 신경쓰고 있을 것이다. 미국은 캄보디아나 베트남의 상당 부문을 황폐하게 만든 것처럼 한반도를 황폐한 곳으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다. 보병·포병·탱크보다도 걸프전에서 본 것처럼 미사일이나 각종 공중 공격을 통해 얼마든지 가능하다. 현대의 全面戰은 엄청난 희생을 치러야 이긴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상대방간에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만일 중국이 자신들의 안보를 위해 미국을 위협하기 위하여 비록 북한 지역이라도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하지 않겠는가? 미국도 1950년에 이미 러시아가 영국이나 프랑스를 점령하는 경우 그곳에 핵 폭탄 공격을 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

둘째,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한다면 그 전쟁은 한민족 말살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이다. 걸프전에서 사망률은 100 명당 1 명이었다. 그 당시의 미군은 남한의 지상군

보다 적었다.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하면 故 맥아더가 압록강까지 진격하였을 때처럼 중국군을 상대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군과 할 것이다. 인명 손실은 한국인들뿐이다.

셋째, 이미 시행중이기는 하지만 긴장 완화를 위한 최소한의 공식적인 시도가 있다는 점이다.

전쟁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두려움보다는 사랑이 낫다. 미국인들은 미국의 법을 사랑하고 그것을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강하다. 김대중 대통령은 1894년 착취에 벗어나려는 동학혁명 사상에서 민주적인 한국인 이미지를 찾고 있다. 역사가 짧은 미국의 혁명에서도 사실 정치 경제적인 자유 운동이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었다.

현재의 금융 위기를 살펴보자.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의 질서를 상당히 위협하는 수준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지적한다. 성공적인 군사 전략은 정부로 하여금 보호해야 할 국민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그 전략 자체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의 대체물이 될 수 없다. 전세계 경제의 회복을 위해서는 각국이 제일 저렴한 재화를 생산하고 사업을 운영하며, 고용을 창출해나가며, 일반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일터를 자랑

스럽게 여기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이것은 소위 말하는 '유니버설'을 의미한다. 서로 물고 물리는 악순환에서 벗어나야 한다.

과연 위대한 국가들이 있는 동북아시아에 군사적인 무장과 엄청난 대규모 군사 전략이 필요한가를 생각해봐야 한다. 물론 이러한 의견에 비난이 있다. 하지만, 우리는 직면한 현실보다도 그 이상의 목적과 궁극적인 관심사에 신경을 써야 한다.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또 상대방을 두렵도록 만들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다. 두려움과 증오의 가면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선한 뜻과 성숙한 신뢰, 그리고 인간적인 얼굴을 회복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한반도에서의 전쟁 발발 가능성과 긴장 완화를 위한 주요한 고려 사항을 본다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인 비무장 지대 양편으로 무기들이 자신들을 향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상호간의 집단적인 대량 학살극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적어도 몇몇 공식적인 대응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99